

익산교육 백년지계 '청사진'

평생학습부터 고등전문교육까지... 단계별 핵심전략 제안

익산시가 보편적 평생학습부터 인재 고도화까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 발전을 위해 교육 백년지계 청사진을 그린다.

16일 시에 따르면 익산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익산시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 네트워크 이름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시는 국가평생교육 진흥계획과 방향을 맞춰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정책사업과 발전방안을 익산시 평생학습도시 5개년(2023~2027)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11월 까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학과 권인택 교수의 연구진과 함께 진행됐다. 지난 중간보고회 의견을 반영해 보편적 평생학습체제 구축부터 평생학습 일자리 창출까지 각 단계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실천방안으로 배움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평생학습과 전문적 심층학습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먼저 교육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을 위해 나이와 계층 소외가 없는 학습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보편적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추진체제 재조직화, 생애주기별 시민대학, 접근성을 높은 권역별 캠퍼스 운영, 성인문해교육 강화가 제시됐다.

장애인 등 학습소외계층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체제를 구축 평생교육 우수자를 통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강사인증제 및 강사학교 운영 등 사업 실천방향을 마련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전문인재육성을 위한 학습의 깊이를 더했다.

우선 고등평생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구축 등에 힘을 기울인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재난관리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시, 재난관리 대통령 표창

행안부 주관 재난 대비 민감성 높여... 대표 안전도시 자리매김

익산시가 재난관리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관 중 전국 1위로 평가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 수상과 더불어 포상금 천만원을 받는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재난관리 단계별 필수업무, 재난유형별 관리활동 등 재난관리 역량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재난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 구축과 민관협력력을 기반으로 위협재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현장중심 예방 노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특히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 다중 시설 위기관리 등 대비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비상대비훈련 유공기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관상 수상하는 등 재난 대비 민감성을 높여 안전관리강화 및 위기관리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영광스런 수상은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재해·재난 없는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농산물, 5조원 간편식 시장 출사표

시 ·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푸드통합지원센터, 상생협력... 지역 농산물 활성화 기대

익산시가 전국 유일 식품산업클러스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농산물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가정 간편식 시장에 진출한다.

가정간편식(HMR) 시장 규모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역 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편식(HMR)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에서 지역 농산물 유통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참가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익산시 정현을 시장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영

재 이사장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유희환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과 함께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만든 가정간편식(HMR) 개발상품 시식행사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와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간편식(HMR) 생산에 필요한 지역 농산물 공급과 판로개척을 담당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는 제품개발에 주력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농산물 생산·공급지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생산 자문지원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 생산·공급 확대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등이

다.

앞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주관하는 가정간편식(HMR) 개발·판매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고구마달걀볶음, 대파불고기 제품을 개발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제품개발을 활성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공공급식,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그동안 시제품 개발 등에 사용되는 관외산 농산물을 지역 농산물로 교체해 소비촉진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지역 푸드플랜 거점시설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가 내년부터 가동되면 지역 농산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버스 지·간선제 현장 대응 강화

익산시가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위해 도입한 지·간선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콜센터와 환승 도우미 등을 적극 활용해 민원에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6일 시는 지·간선제 시행 첫날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기하며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환승장에 벤치를 설

치했으며 주요 승강장에 버스 노선과 시간을 안내하기 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 헬터와 비탈막이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시는 환승 도우미 등 현장 대응 인력과 통합 콜센터 기능을 강화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별 탑승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명판 부착과 배차 버스와 간격 조율 등 승객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즉각 처리해나갈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는 지난 15일부터 합영과 금마, 여산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버스 지·간선제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시내에서 3곳 주요 거점까지 현재처럼 간선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주요 거점에서 읍면지역은 수요응답형 또는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군산시농기센터, 농산물 가공·판로 확대 박차

군산시가 농산물 가공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6일 시 농기센터에 따르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2동과 맥아제조시설 1동을 운영하며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및 판로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기센터는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활성화와 지역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소규모가공·창업장 관측지원, 군산맥아 및 지역 특산 수제 맥주 산업화 등을 지원했다.

실제 농민에게 인어 농산물이 발생하거나 기존 농산물을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2차 가공 및 포장(자부담)을 통해 가공된 농산물이 로컬푸드 판매까지 이어지며 소득증대가 이어지고 있다.

또, 수제맥주 체험관(비어포트) 및

맥아제조시설 운영을 통해 수입맥아가 보편화된 수제맥주 시장에서 군산 맥아를 이용한 로컬 맥주를 선보이며 군산맥주 브랜드화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농기센터는 농산물가공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소규모 디지털 HACCP 시설 설치, 소규모플랜트 가공장비 구축을 추진, 이를 통해 이용 농가의 편의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에는 군산맥주 및 청주 공동양장 기본설계 및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조 전문가 육성을 위한 창업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내년 시행

군산시는 16일 전기차 소유자의 충전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부터 친환경차 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해,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충전방해 행위로 신고된 차주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제도와 기준을 알리고, 공동주택·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 등에도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평생학습관, 명장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군산시평생학습관은 16일 지역 재능보유자와 함께 배우는 명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장 프로그램은 오는 25일 '제1강 명장의 헤어스타일링 이야기(김정미 명장)', 29일 '제2강 궁중음식의 이해와 현대적 발전(유현자 명장)'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시는 '군산시 명장'을 '숙련 기술자' 중에서 해당직종에서 15년이상 종사하고, 현재 5년이상 군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소재 사업장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자로 선정해 오고 있다.

명장 프로그램은 지역 재능보유자의 지역 특화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장인들의 자긍심을 높여 시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강사에서 제강은 김정미 명장의 헤어스타일링 이야기와 일상생활 관련한 스타일링 연출하기를 주제로 운영되며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타일링 연출기법도 설명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